

종합

광주·전남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 비상

한나라당 예산안 단독 강행 처리 여파 국비 지원 끊겨 자치단체 부담 떠안아 3만9000명 17억여원 확보 전전공공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로 방학 중 결식 아동에 대한 정부의 급식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자치단체가 전전공공하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로 내년도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끊겨 내년 1만7000명에 대한 급식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의 경우 올해 34억원의 자체

예산과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은 6억 8000만원을 보태 방학 중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해 왔지만 내년에는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처지다. 전남도도 사정은 비슷하다. 올해는 지방비 30억3048만원에 국비로 지원받은 10억9200만원을 더해 도내 2만 2000명에게 방학중 급식을 제공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이 금액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내년 전남도 예산안의 편성·심사가 끝난 만큼 당장 추가 확보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남도는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되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확보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열악한 재정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남도측은 “올해 내려온 국비 10억9200만원이면 대략 8800명의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국고지원이 사라지더라도 급식 지원 대상을 축소하지는 않겠지만 열악한 재정 사정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정부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내년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

로 한나라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양육수당 확대’도 물거품이 돼 기대에 부풀었던 광주·전남 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애초 36개월 이하 영·유아 10명 가운데 7명이 월 10만~20만원씩 양육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증액안을 의결했다. 이렇게되면 전남도는 국비 157억원 등 모두 320억을 확보하게 돼 도내 영·유아 1만6000여명에게 10만~20만원의 양육 수당을 매월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단독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물거품이 돼 전남지역의 경우 4235명의 영·유아에게만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도라산역 관광 재개 14일 오후 관광객들이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을 돌아보고 있다. 군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20일 만인 13일부터 관광객의 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구역) 출입을 일부 허용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토지거래허가 구역 4.81km² 해제

동구 용연동·나주 남평 풍림리 등

광주시 동구 용연동과 전남 나주시 남평을 풍림리 등 광주·전남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4.81km²가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2408km²(국토 면적의 2.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보에 고시되는 15일부터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는 곳은 광주의 경우 동구 용연동 일부 3.07km², 북구 오치·정동·충효동 일부 1.6km², 남구 원산동 일부 0.08km², 서구 용두동 일부 0.03km², 광산구 광산동 일부 0.02km² 등 모두 4.81km²다. 전남에서는 나주시 남평을 풍림리, 노안면 학산리 일부 0.01km²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전국적으로는 수도권의 녹지·비도시 등 1688.63km²와 수도권·광역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719.37km²가 해제됐으며,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 6882.91km²의 35%에 해당한다. 지역별 해제 면적은 서울이 54.35km²로 전체 허가구역의 23%이고 인천 219.78km²(46.7%), 경기 1천878.97km²(43.6%), 지방권 254.9km²(13.7%) 등으로 수도권 해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서울은 4분의 1, 인천·경기는 절반 가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는 셈이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지자체가 지정한 1천118km²를 포함해 국토면적의 7.98%에서 5.58%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땅값이 8월부터 하락세

로 돌아섰고 거래량도 예년보다 줄어드는 등 토지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장기간 허가구역으로 묶여온 데 따른 주민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해제 지역은 구체적으로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은 개발·보상이 끝난 지역과 국·공유지, 중첩 규제 지역, 휴전선 접경지역 등을 중심으로 풀었고, 수도권 및 광역권 그린벨트는 공원 등 국유지여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적은 지역과 중첩 규제 지역 등을 위주로 해제했다. 다만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가 지가 불안이나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가 없어도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종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한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영남권 도로 증액예산 호남의 3배

내년 1927억 배정 ... 전체 사업비 절반이상 차지

한나라당이 새해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영남지역 도로 예산을 집중적으로 증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장병완 민주당 의원(광주 남)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새해 예산안에는 도로 예산이 정부안보다 3553억원 증액됐으며 영남지역 도로 사업에 전체 도로 부문 증액 예산의 54%인 1927억원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영남을 제외한 전국의 도로 예산 증액분 1626억원에 비해 20% 가량 많은 것이며 호남의 617억원에 비해 세 배 이상 많은 것이다. 또한, 정부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못했으나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 과정에서 도로 사업 예산 716억원이 추가됐는데 영남지역에는 509억원이 배정된 반면, 호남(80억원) 등 나머지 지역은 207억원에 그쳤다.

장병완 의원은 “한나라당이 행정 사상 유례없는 3년 연속 날치기 처리를 하면서 노골적으로 형편 및 실제 예산을 챙긴 것은 물론 막대한 지역 예산 증액 편성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특히, 도로 부문 예산의 영남 편중은 한나라당의 ‘영남 밀어주기’ 행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학교 운동장·체육관 무료 개방

광주시의회 공유재산 관리 개정 조례안 의결

내년부터 광주시내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이 무료로 개방된다.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운영발주도 어려워진다. 광주시의회 손재홍 의원(민중·동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학교 체육시설을 생활체육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물론, 그동안 실비명목으로 받아오던 일체의 비용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면제해 주는 대신 유지관리비용 충당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각각 50%씩 부담, 7억원이 이 확보했다. 이번 조례안은 23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통과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손 의원은 “학교가 단지 학생들만을 위한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이와 함께 각 자치단

체의 무분별한 운영 발주를 막기 위해 모든 운영 심의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조례를 개정기로 해 주목된다. 광주시의회 이은방 의원(민중·북구 6)은 14일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즉시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광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만 용역과제 심의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용역 시의 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 대통령 “내년 예산 60% 상반기 집행”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내년 예산 집행과정에서 상반기중 전체의 60% 가량이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어려운 가운데 대외환경이 호전되고 있다”며 “내년 예산이 (정기국회) 회기가 통과됐을 때부터 매우 효과적으로, 긍정적으로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일지리를 창출하고 물가를 잡는 게 바로 서민 정책”이라며 “내년 5%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어려운 가운데 대외환경이 호전되고 있다”며 “내년 예산이 (정기국회) 회기가 통과됐을 때부터 매우 효과적으로, 긍정적으로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종두

하다 하다 쇼까지 보여 주는구나

티켓몽키에서는
매일 밤 11시, 광주의 모든 곳이 반값이 됩니다.

http://www.t-mong.co.kr
50%~90%

오늘 단 하루! 티켓몽키에서는 **50% SALE**

크리스마스를 직접 준비하세요.
케익, 파스타, 샌드위치 요리강좌!
이수정요리학원
와인강의도 무료로 진행됩니다.

광주·전남 대표 쇼핑몰
http://www.t-mong.co.kr
이수정요리학원
방범동휴먼시아빌 **062-675-1178**

오늘 단 하루! 이수정요리학원 케익, 파스타, 샌드위치 요리강좌가 단 돈 25,000원

NAVER 티켓몽키 를 검색해보세요.
본 광고를 올려서 가져오시는 분들은 이수정요리학원 전 강좌를 5%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부동산매각공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접 | 건물내 상가 상업중

무치공인 | 원위치 | 일곡지구 | 31사단 | 시라APT | 무이APT | 오이호반APT | 호반APT | 북부서

○ 사건번호 : 광주지법 2009타경 35086호(경매24계)
○ 매각대상 부동산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752-16의 6필지 총대지면적 6,189㎡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752-16, 752-45 위치상 건물 총면적 8,828㎡
(태우스파랜드 5층정밀방물건 및 상가다수)
○ 최초발사가 (감정가) : 10,193,861,600원
○ 당회최저입찰가 (5차) : 3,651,224,000원
○ 입찰일시 및 장소 : 2010년 12월 30일 (목) 10 : 00
광주지방법원 경매법정

*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경주농협 채권관리팀(054-777-8130~4)
안강농협 채권관리팀(054-761-4485)

2010년 11월 29일
경주농협협동조합
안강농협협동조합

국비지원 교육생 모집
농산물품질관리사반

★웰빙(참살이)시대의 국가공인 유망자격증★
전국 최강의 전문강사진으로 대폭교체
취업의 꿈이 현실로 - 2013년부터
의무고용추진, FTA로 더욱 중요!

1월 3일(일) 대개강
주·이건반/주말반

1차시험 (5월29일)대비
*12월 말일까지 등록자
모두에게 창평말기 1kg 증정

★농업인·축산인·임업인 특별혜택★
◆언제든지 청강 환영!
[서승철경영학박사, 김세미농학석사, 윤종하(전)물관원,
최대농동사협회장, 손승운, 위영환, 전창훈교수진]

◆7·9급 농업직, 농촌지도사
18년 경력의 손승운 교수팀 직강

집농업전문전화 226-5050
위치 : 전남여고 건너편(동부경찰서~전일빌딩) 학원가입구, 광주고시학원건물1층

★ 사례금 100만원 ★

“실종 가족을 찾습니다”

(치매가 심하고, 반백 짧은 스포츠형 머리, 분홍색 환자복 착용(목 뒷부분에 연락전화번호 있음), 맨발 또는 양말 차림, 왜소한 편, 베이시색 점퍼(추정), 말(대화)하기 좋아하심.)

■ 성 명 : 박연택(남/78세)
■ 실종 일시 : 12월 3일 오후 8시 30분경 추정
■ 실종 장소 : 광주 북구 생용동

신고자 : 010-3605-8400
요양원 : (062) 571-0129, 572-0129